

민주, 내년 지방선거 준비…여성·청년 기회 확대 ‘관심’

하위평가 여부·컷오프 기준 등 경선룰 조만간 윤곽

이춘석 의원 지역구 ‘전북 익산갑’ 사고 지구당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와 당원자격 심사위원회, 지방선거기획단을 재조직 하는 등 본격적인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에 나선다. 특히 당 안팎에서 ‘당원 중심의 공천’과 ‘여성·청년 기회 확대’ 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선 관련 위원회와 기획단의 향후 활동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관향급(순천·광양·곡성·구례을) 대변인은 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이 같은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는 조강특위, 당원자격심사위를 구성하고 내년 지방선거기획단을 설치하는 안을 의결했다.

선거기획단장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맡았다.

또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하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 의혹으로 제명된 이춘석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갑을 ‘사고 지구당’으로 결정했다.

이 의원의 제명으로 공석이 된 지역위원장 직무 권한대행의 경우 인선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권 대변인은 “새 당대표가 선출되면 당원자격심사위나 조강특위를 당연히 꾸려야 한다”며 “단순히 이춘석 의원의 건으로만 이번 기구 구성을 단행한 게 아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에 조강특위, 당원자격심사위, 선거기획단 등을 모두 순차적으로 구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선거기획단 등이 꾸려지면 민주당은 빠르게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하위평가 여부, 컷오프 기준, 탈당·복당차 처리 기준 등 구체적인 경선룰도 윤곽이 드러

나게 된다.

현재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청년·여성 의당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들의 지방선거 참여 폭을 늘리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여성과 청년의 지방선거 참여는 지방자치 취지에도 맞고 민주당의 방향성과도 일치한다”면서 “과거에도 경선 과정에 신인에 대한 다양한 기회가 제공됐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지역구에서 여성·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정청래 당 대표가 약속한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도 의결했다.

준비단장은 장경태 의원이, 부단장은 이해식·문정복 조직 담당 부총장이 맡았다.

앞서 정 대표는 호남을 찾아 정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가겠다”며 “평당원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자격 유지 기간 내 당직 및 공직 출마 경험 없이, 당원 100명 이상의 연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 TF를 구성해 1차 서류 심사를 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공개 오디션을 갖게 된다”고 소개했다. 공개 오디션은 배심원 50%, 당원 여론조사 40%로 선발한 뒤, 정견 발표 등을 거쳐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호남특위 수석부위원장 내정

광주 이병훈·전남 김성·전북 이원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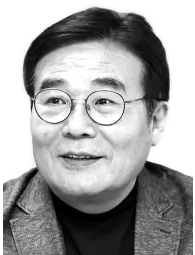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상석 최고위원은 11일 특위 수석부위원장에 이병훈 전 국회의원, 김성 장흥군수, 이원택 국회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광주, 김 군수는 전남, 이 의원은 전북 뒀다.

서 위원장은 광주의 이 전 의원은 광주지문화경제부시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검증된 지역 정책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현재 전남 시장군수협의 회장을 맡고 있는 재선의 김 군수는 지역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북 지역 재선 국회의원인 이 의원은 전란 부지사와 정와대 지지발전 행정관을 역임한 지역발전 전문가로 손꼽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석부위원장단의 풍부한 입법·행정



이병훈 부위원장

김성 부위원장

이원택 부위원장

경험과 전문성은 특위가 호남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발전 아젠다를 제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호남발전특위 위원은 광역별 15명 내외로 구성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장 전문가를 비롯한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尹 불출석 부끄러운줄 알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의 의원들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취재진 앞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대표 “국힘, 대선 불복 발언 정상 아냐”

민주당 최고위…“국힘 지도부 선출 토론, 국민이 이해하겠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1일 “국민의힘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와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쇄신을 외치며 시작한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 레이스가 국민이 가진 한 톨의 기대마저 저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선 결과를 불복하는 말도 서슴지 않은 토론회가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나”며 “(김문수 후보가 토론회에서) 총부리를 국민께 겨눴지만 아무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말한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내란에 대한 단죄는 여야 간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주요 정치인 이름과 ‘확인 사실’ 등의 문구가 적힌) ‘노상원 수첩’에 있는 대로 실행이 됐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그리고 여기 있는 의원들 상당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되돌아가려면 내란에 대한 깊은 반성, 대국민 사과, 단죄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상적이고 건강한 야당 파트너와 함께 민생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에 대해선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뇌물 수수 의혹까지 중대 범죄에 대한 김건희씨 해명은 실소를 자아내기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들과의 말 맞추기, 증거 인멸에 대한 강한 의지가 확인된 만큼 구속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구속 수사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더 이상의 관대함은 이제 없어야 할 것”이라며 “상식적인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의원의 정책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현안 대응을 포함해 해당 분야 정책 전문 의원들이 의총 때 강의를 하고 당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대 방해’ 전한길 징계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했다는 사유를 들어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연 뒤 최재진과 만나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언론에 보도된, 당무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맞다면 전 씨의 사안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

정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오늘은 예상과 달리 결과를 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피징계요구자인 전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을 알리고 소명하려면 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게 돼 있다. 그 공문을 오늘 오후 전씨에게 보내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이 2~3일 걸릴 수 있다.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윤리위를 다시 개최해 전씨가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자료를 가지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징계 개시를 결정하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본인이 윤리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겠다는 공문을 서면으로 보내도록 한다.

다만 당헌·당규상 징계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위원회 재직 위원 과반수 의결로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나, 전 씨에게도 소명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여 위원장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이수화(801201-2XXXXXX)
- 최종주소 : 나주시 봉황면 죽향로 11-28
- 피상속인 망 이수화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년단4018호로 신청하여 2025년 7월 1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지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8월 12일
- 상속인 : 조민영(990401-2XXXXXX) 나주시 남평읍 작수길 32
- 신고기간 : 2025. 8. 12. ~ 2025. 10. 22.
- 채권신고처 : 광주 동구 동명로 110, 101호 (지산동, 범조타운) 법무사 양희상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부재철(620621-1XXXXXX)
- 최종주소 : 광주 북구 중문로 28(우산동)
- 피상속인 망 부재철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년단4114호로 신청하여 2025년 8월 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 신고를 하시지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8월 12일
- 상속인 : 1. 부진호(950213-1XXXXXX) 2. 부창호(980308-1XXXXXX) 광주 북구 양산택지34번길 14, 302호 (양산동)
- 신고기간 : 2025. 8. 12. ~ 2025. 10. 22.
- 채권신고장소 : 광주 동구 동명로 110, 101호 (지산동, 범조타운) 법무사 양희상

주목성 뛰어나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150회, 월4500회 송출

국내 최고화질 LED플라자 최고화질

-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률 최고!
-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 광주동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 아시아문화전당 앞 충정로 입구 공면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 높은 광고효과**
 -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최적의 장소
- LED전광판의 특징**
 -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5년 08월 11일 이사회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800,000,000원 중 금 500,000,000원정을 감소하여 금 300,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 금액 금10,000원의 주식 50,000주에 대하여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대로 유상소각하여 발행주식 총수 80,000주를 3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 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와 주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제출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2일

청담엘피아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82번길20 2층 (용봉동)

대표이사 오 명 현

고급 전원주택 매매 (명당 위치)

전남 담양 수북 쪽재골길

대지 704py. 주택 60p

카페부속건물 20p. 태양 6킬로

최고급 독일 건축재료. 경치 최고.

금 매

매 16억 9천. 은행 11억.

인수가 5억 9천

010-3646-8700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신